

陰陽 五行說에 對하야(一)

天台山人の 蒙을 啓함

趙憲泳

近日 本□에서 天台山 人氏의 『古典涉獵□□』을 興味있게 읽었다. 그 論評의 範圍가 너무나 넓어서 淺識한 筆者가 그것을 一一히 批判할 能力이 없으나, 그 論文가운데 陰陽五行說에 對하야 特히 筆者를 指摘하여 가며 漢醫學上 陰陽五行說을 無責任하기 짝이 없게 論評한대 이르러서는 東洋學의 權威를 爲하야 漢醫學衣 鉢전-人類의 保健을 爲하야 一言이 없을 수 없는 責任感을 느끼는 바다.

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苦笑에 値할것은 宗教復興의 吶喊의 影響이었을가. 漢方醫까지 陰陽五行說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郭沫若氏의 八卦周易에 關한 研究와 胡秋原氏 等の 陰陽五行說成立에 關한 研究 等이 벌서 中國의 漢□哲學을 顛倒시키고 있지만 대관절 趙憲泳氏流의 젊은 學徒가 科學의 世界에서 五行陰陽의 神秘的 世界로 뛰어 들었다는 것은 確實히 一個의 好話題다. 漢醫의 治療法과 用藥自體를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 그 哲學의 根本이 되는 陰陽五行說을 그 □□로부터 誅去하려는 者다.

陰陽五行은 中國 原始 信仰의 神秘化로서 벌서 그 成立의 起原을 忘却한 春秋戰國때에는 훌륭하게 宗教化되어 特히 漢代에 이르러는 醫學뿐만아니라 卜筮□□之書는 말할 것도 없고, 詩書百家에 까지 이로써 解釋하려고 하였든 것이다.

이는 完全히 花郎의 歷史를 神秘化하거나 □君의 歷史를 高揚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學問의 對象을 神秘化시킨다는것은 政治家나 宗教家들의 職能이요, 眞正한 學徒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대관절 天台山 人氏는 陰陽五行說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았는가. 漢醫學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漢醫學上 陰陽五行說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더욱이

趙憲泳이가 漢醫學의 陰陽五行說을 어떻게 取扱하고있는지 아는가.

陰陽五行說을 否認하기前에 먼저 天台山 人氏自身이 周易을 비롯하여 古今의 이에 關한 文獻을 冷靜한머리로 批判的으로 精□히 研究해야 할 것이오. 漢醫學을 評하기 前에 적어도 素問靈樞를 비롯하여 諸大家의 著書를 大略 涉獵해야 할 것이오. 趙憲泳이를 □□攻撃하기 前에 먼저 그 著書를 읽어야 할 것이오. 郭沫若氏의 說을 引用할때는 반드시 郭氏의 著書를 充分히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天台山 人氏는 陰陽五行說을 모르고 漢醫學을 모르고 郭氏의 周易 研究를 仔細히 읽지도 안코 筆者의 漢醫學論을 보지도 안코 그것들을 마음대로 論評引用, 攻撃하였으니 이것은 學究者로서 到底히 取할수없는 行動이다.

氏は 말하되

『苦笑에 値할 것은 宗教復興의 吶喊의 影響이었을까, 漢方醫까지 陰陽五行說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라 □하였다.

다시 내세우기 始作했다는 『다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漢醫學은 그 最初の 文獻인 黃帝內經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그 基礎理論이 陰陽五行說에서 한결음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다시 내세운다 던가 宗教復興의 吶喊의 影響이 었을까. 云云은 明確히 天台山 人氏의 漢醫學에 對한 無知를 意味하며 그 苦笑는 □人의 우습이 아니면 失□의 우습을 免치 못할 것이다.

또 『郭沫若氏의 八卦周易에 關한 研究와 胡秋原氏 等の 陰陽五行說成立에 關한 研究 등이 벌써 中國의 漢□哲學을 顛倒시키고 있지만……』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輕率한 斷案이라고 하지 안 할수 없다.

氏は 郭沫若氏의 八卦周易에 關한 研究를 仔細히 읽어 보았는가. 이야기만 듣고 하는 말인가.

筆者의 아는□□에는 郭氏는 決코 陰陽五行說을 否認하지못하였다.